

일반

외국인 밀집지 내 이주자 시민행동과 장소애착심

대림동을 사례로*

Civic Engagement and Place Attachment of Immigrants in an Ethnic Cluster:
Daerim-dong as a Case Study

신지연** · 박인권***

본 연구는 외국인 밀집지(이하 '밀집지') 내 지역 개선을 위한 이주자들의 시민행동의 요인과 효과, 장소애착심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서울시 대림동 자율방범대 자원봉사자들의 경험에 대해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는 이주자로서의 특수성과 일반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먼저, 밀집지에 대한 긍정적 인지 및 개인 성향과 같은 일반적 요인 외에도, 이주자들의 경우에는 현지 적응과 민족공동체 의식과 같은 특수 요인이 장소애착심 및 시민행동을 위한 인과적 조건으로 작용한다. 또한 이주자 및 밀집지에 대한 현지의 부정적 여론이 이주자들의 지역봉사 동기를 자극하며, 그들의 사회관계망도 시민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주자 시민행동은 개인적, 사회적, 환경적, 그리고 시민활동 자체의 발전을 견인하며, 이는 다시 장소애착심을 더욱 강화한다. 이로부터 우리는 이주자의 적응과 장소애착심 및 시민행동, 지역사회 개선이 서로 상승작용을 낼 수 있는 조건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주요어: 외국인 밀집지, 시민행동, 이주자, 장소애착심, 지역봉사, 근거이론, 대림동

*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신입교수 연구정착금으로 지원되는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또한 이 논문은 2017년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 한국사회과학연구사업(SSK)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7S1A3A2066514).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수료(제1저자, jiyonshin@snu.ac.kr).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부교수, 환경계획연구소 소장(교신저자, parkik@snu.ac.kr).

1. 서론

세계화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외국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9년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체류 외국인 수는 252만 4600명으로서 우리나라 총인구의 약 4.9%에 이르고, 이 비율은 매년 늘어나고 있어 한국도 이제 점차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외국인들의 장기 거주 추세도 강하게 보이고 있어, 이는 단기적 현상이 아닌 장기적 사회변화를 의미한다.

많은 이주자들은 특정 직무에 필요한 기술은 있지만 의사소통 능력 등이 부족하거나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차별을 받거나 소외당하는 경우가 많다(고민경, 2019). 이러한 배제로 인한 사회적 분리는 사회적 약자들이 배제 메커니즘에서 자유로운 자신들만의 공간을 찾아 이주하거나 군집함으로써 공간적 분리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Gidwani and Baviskar, 2011). 이러한 공간적 분리과정을 거쳐 서울 곳곳에 이주자들이 모여 사는 외국인 밀집지(ethnic cluster)들이 생겨나고 있다(박세훈, 2010; 박윤환, 2011).

이런 외국인 밀집지는 이주자들에게 사회 내 정착을 도와주고 모국의 문화정체성을 보존하는 상징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다양한 문화콘텐츠 도입으로 도시 내 새로운 풍경을 창출하고 쇠퇴하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Trueman, Cook and Cornelius, 2008). 그러나 잘 관리되지 않고 인구 밀도가 높은 외국인 밀집지는 점점 더 주변 환경에서 고립되어 내국인들이 피해가는 도시 내 위험한 장소로 낙인 찍힐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외국인 밀집지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외국인 밀집지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법을 도입하려는 계획 등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관 주도의 하향식 관리만으로는 예산과 인력의 한계로 인하여 지역사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견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지역 내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 개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지역 내 선순환이 이루어지며 지역 이미지 개선과 치안 강화 등을 통해 지역 활성화가 이루

어질 수 있다.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 개개인이 책임감을 갖고 기여하는 봉사 및 사회적 참여 등의 다양한 행위를 시민행동(civic engagement)이라고 하는데, 이는 지역 내 문제해결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lanagan et al., 1998; Da Silva et al., 2004). 따라서 외국인 밀집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그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의 커뮤니티를 개선하기 위한 시민행동에 참여하게 되는 요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주자들은 내국인들에 비해 사회적응이 우선시되고 시민행동에 적극적이지 않은 편이어서(Song and Soopramanien, 2019),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이러한 자발적인 시민행동 사례들을 찾기 쉽지 않다.

실제로 이주자의 행동과 관련된 연구는 아직까지 주로 이주사회 적응행동에 대한 연구¹⁾에 머무르고(김현선, 2010; Boğaç, 2009; Sheng, Gu and Wu, 2019) 시민행동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또한 이주자의 일반적인 범지역적 시민행동(Rochelle and Shardlow, 2012)에 관한 연구는 있었으나 외국인 밀집지라는 특정 장소 내에서의 행동을 보는 연구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외국인 밀집지는 이주사회 적응을 도와주며 모국문화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들이 중심이 되는 장소’로서 상징적인 특수성을 가진다(Fried, 2000; Chang, 2000).

이주자들은 이런 외국인 밀집지에 대한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그 장소에 대한 장소애착심(place attachment)을 가지게 된다(Mazumdar et al., 2000; 서지수, 2012). 장소애착심이란 의미 있는 장소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적·감정적 유대감을 뜻하는데(Low and Altman, 1992), 이는 공원(Williams and Vaske, 2003), 자연환경, 집, 별장, 동네, 도시, 나아가서 나라나 지구처럼 광범위한 공간을 대상으로 형성될 수 있다(Devine-Wright, Price and Leviston, 2015). 공간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장소애착심을 다양하게 정의해 온 만큼 장소애착심을 구성하는 요소들도 여러 가지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대체로 어떤

1) 주로 외국인 밀집지 및 이주사회에서 더 오래 거주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연구이다.

장소와 자기를 연관 짓는 장소정체성(place identity)과 장소에 대한 의존성(place dependence)이 장소애착심을 구성한다는 데에는 의견 일치를 보인다(Williams and Vaske, 2003; Kyle et al., 2005; Anton and Lawrence, 2014).²⁾ 외국인 밀집지는 이주자들에게 특별한 곳으로서 그들의 장소애착심이 발현될 수 있는 특수한 공간이다. 그러나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범지역적 이주자 시민행동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외국인 밀집지의 특수성을 간과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국인 밀집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 지역에서 전개되는 이주자들의 시민행동의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이주자가 외국인 밀집지에 대해 갖는 장소애착심이 여러 가지 개인 특성 및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지역 내 봉사활동 참여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영등포구 대림동을 사례로 하여 우범지대 내 '외국인 자율방범대원단'에서 봉사하는 이주자 15명을 대상으로 실제 참여 경험에 대해 근거이론 방법을 통한 분석으로 장소애착심을 매개로 하는 시민행동의 요인과 과정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2. 시민행동과 장소애착, 그리고 이주자

1) 시민행동의 개념

Putnam(2000)은 크게 투표권 행사를 의미하는 정치적 참여, 지역사회 내 협회 등의 구성원으로서의 참여활동을 일컫는 사회참여(civic participation), 종교적 참여, 이타적 활동(기부 등), 자원봉사활동 등을 시민행동³⁾의 다양한

2) 장소정체성과 동일시되기도 하지만 장소정체성은 긍정적 정체성과 부정적인 정체성을 모두 포괄할 수 있으므로, 장소에 대한 긍정적인 애착인 '장소애정(place affect/affection)'(Kals and Maes, 2002)은 별도의 구성요소로 볼 수 있다.

3) '시민행동'은 영어의 civic engagement, civic responsibility, civic behavior 등 다양한 용어들로 표현된다.

예로 들며, 특히 이타적 활동 및 자원봉사활동(volunteer)은 사회관계망이 두터울수록 실현되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보았다(Putnam, 2000: 117). 반면에 Adler(2005)는 시민행동(civic engagement)을 개인 및 단체행동 차원의 범주 내에서 활동의 목적성(헌혈과 멘토링 같은 지역 사회를 위한 행동 또는 정치적 활동)에 따라 여러 활동으로 분류하였다. 실제로 관련 논문들에서는 정치적 참여뿐만이 아니라 쓰레기 줍기나 재활용 등의 친환경 행동(Vaske and Kobrin, 2001; Song and Soopramanien, 2019)이나 이웃을 돕는 행동, 동네에 오래 거주할 의지(Sheng, Gu and Wu, 2019), 집 앞이나 정원 가꾸기(Galster and Hesser, 1988; DiPasquale and Glaeser, 1999) 등 넓은 범위의 다양한 행동들을 시민행동의 범주에 포함하였다. 이렇듯 시민행동은 사회 내 여러 방식으로 표출되며 정의 또한 다양하나(Adler, 2005; Payton, Fulton and Anderson, 2005),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이 개념은 “공익을 위하여 개개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인 기여를 하는 행동으로서 지역 사회 내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간주된다(Da Silva et al., 2004: 230). 이는 Putnam(1993)의 사회적 자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개념으로서 “사회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p.3)시키는 데 일조하는 실천적 기본 단위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개인 또는 단체는 공익을 위해 크고 작은 시민행동을 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효율성과 질을 향상시킨다. 사회 전체 차원에서 시민참여와 같은 시민행동은 지식과 참여 노하우의 증대, 시민들의 의사결정 지원 등을 통하여 민주주의의 질을 제고한다(Michels, 2011). 또한 지역봉사와 같은 시민행동은 개인차원에서 자존감과 자기효능감의 향상, 사회적 네트워크의 확장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연대감과 소속감 형성 등의 결과를 가져온다(김은재, 2018). 그 외에도 시민행동은 개인역량 강화, 이타적 가치실현(Clary et al., 1996), 지역에 대한 애착 강화 등의 효과까지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Toomey et al., 2020).

2) 시민행동의 요인

그렇다면,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관리 및 사회 전체 차원에서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는 시민행동을 하게 하는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관련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장소애착심과 사회관계망이 시민행동을 유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밖에 사회경제적 지위, 거주기간, 봉사심, 이타심, 개인 동기 등 개인적 특성이 중요한 작용을 한다.

(1) 장소애착심(Place attachment)

장소애착심이란 개인에게 의미 있는 장소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적·감정적 유대감을 뜻하며(Low and Altman, 1992), 장소애착심을 가진 사람은 본인이 애착을 가지는 곳에 시간과 자원을 더 투자한다고 한다(Stedman, 2002). 예컨대, 한 개인이 자기 집에 대한 애착심을 많이 가질수록 집 앞을 더 깨끗이 가꾸고, 이런 개인행동이 모여서 동네 전체가 깨끗하게 관리된다(Galster and Hesser, 1982). 장소애착심이 강한 사람들은 환경미화 또는 재활용을 하는 등의 환경보호를 하며(Vaske and Kobrin, 2001; Payton, Fulton and Anderson, 2005; Song and Soopramanien, 2019), 동네에 더 오래 거주할 의향을 갖게 되며, 동네에 대한 홍보를 하고(Zenker and Rütter, 2014), 지역 커뮤니티나 정당 등에 더 많이 참여한다(Lewicka, 2005; Palmer, Perkins and Xu, 2011; Wu et al., 2019). 이렇듯 많은 연구들은 사람들이 장소를 매개로 이뤄지는 애착심이 시민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 사회관계망

사회관계망 역시 시민행동의 주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Burchfield, 2009; Palmer, Perkins and Xu, 2011; Wu et al., 2019). 내·외국인 모두 사회관계망이 두터우면 현 거주지에 오래 지낼 의지가 있어 기존 커뮤니티 안정화라는 측

면에서 시민행동을 하며(Huang et al., 2018; Sheng et al., 2019; Kanakis et al., 2019), 장소애착심 형성에 크게 기여하여 시민행동을 간접적으로 유발시키기도 한다(Bonaiuto et al., 1999; Lewicka, 2010). Huang et al.(2018)은 이주사회에 기 정착한 친지·가족 관계망과 내국인 친구·동료로 이루어진 사회관계망 및 내국인 주민들과의 빈번한 사회적 교류가 이주자들이 지속적인 거주 의지를 가지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밝혀내며 사회관계망과 우호적인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3) 기타 개인특성

장소에착심과 사회관계망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특성들이 시민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 커뮤니티에 거주한 기간, 봉사심 또는 이타심과 같은 개인적 동기 등이 바로 그것이다.

먼저 소득수준이나 교육수준, 자가주택 여부 등으로 가늠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으면 시민행동을 더 보인다고 한다(Putnam, 2000: 118-119; Shye, 2010).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사회적 자본 또한 많을 가능성이 높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시간과 여유, 자원이 많아서 이를 봉사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사회적 기대, 즉 ‘노블리스 오블리제’와 같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시민행동에 더 적극적일 수도 있다.

다음으로 거주기간은 시민행동과 장소애착심 형성의 주요인으로 밝혀진 바 있다(Goudy, 1982; Lalli, 1992; Prezza et al., 2001; Lewicka, 2005; 2010). 한 곳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은 일종의 주거안정성이 확보된 것을 전제로 하기도 하며, 그만큼 이웃과 교류하며 두터운 사회관계망을 형성하고 동네에서 더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다. 그 결과 거주기간이 긴 사람들은 장소애착심이 강화되고, 동네를 보호하고자 하는 시민행동에 참여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마지막으로 남다른 이타심이나 봉사심, 또는 뚜렷한 동기(예: 봉사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등이 있을 때 사람들은 시민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Anderson and Moore, 1978; Clary et al., 1996; Shye, 2010). 온전히 타인

이나 사회를 위한 마음이 앞서기에 시민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으나, 시민행동을 함으로써 얻는 긍정적인 효과들(사회적 네트워크, 고용기회, 이미지 메이킹 등)이 강한 동기로 작용할 수 있기에 개인동기도 중요하다.

3) 이주자의 시민행동과 장소애착심

앞서 살펴본 요인들은 일반적인 시민행동을 설명할 수 있으나, 다른 나라에서 온 이주자들의 시민행동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실제로 내국인과 이주자를 비교했을 때 이주자들은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시민행동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Song and Soopramanien, 2019). 이주자(외국인)의 경우 새로 정착하는 곳에서 시민행동을 하기에 앞서 낯선 환경과 문화에 적응하는 등 이주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우선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Berry(1997)는 다른 문화 배경을 가지고 이주해 온 이주자들은 문화적응(acculturation)⁴⁾ 과정을 겪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주자들은 모국의 정치·경제·문화 특성과 이주사회의 포용성과 사회적 지원체계에 따라 두 문화 사이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긍정 또는 부정적 문화적응을 경험하고, 이를 기회 또는 스트레스로 여겨 소극적/적극적 대응을 하면서 이주사회에 대한 적응/부적응을 하게 된다(Berry, 1997). 이런 이주자의 심리적 적응과정은 개인특성(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남성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적 적응)의 영향도 받지

4) Berry(1997)는 문화적응을 이주자들의 문화정체성 보존 의지와 이주사회와의 관계유지의 지에 따라 문화정체성을 잃고 이주사회에 종속되는 동화(assimilation) 유형, 모국문화를 보존하는 동시에 이주사회의 주류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호혜적인 관계를 맺는 통합(integration) 유형, 반대로 모국문화를 고수하며 이주사회와 동떨어진 삶을 추구하는 분리(separation/segregation) 유형, 그리고 이주자 문화와 이주사회 문화 모두를 거부하는 주변화(marginalization)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궁극적으로 통합(integration)이 다문화사회 관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문화적응 유형인데, 이는 이주사회의 포용성과 두 그룹 간의 호혜성, 그리고 이들이 함께 속한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애착심이 전제해야 가능하다고 한다. 실제로 네 가지 문화적응의 유형 중 통합유형에 해당하는 이주자들의 삶의 만족도와 정신건강 모두가 다른 유형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erry and Hou, 2017).

만, 무엇보다 이주사회의 포용성이 높고, 모국문화와 이주사회와의 거리감이 작을수록 좋은 경험을 하게 되어 적응을 잘 할 수 있다고 한다. 이주자들은 그들이 익숙했던 물리적 환경, 문화와 사회적 관계망을 뒤로 하고 낯선 환경에 새로이 정착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이주사회에서 적응한 후, 시민행동과 같은 긍정적인 적응 양상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제이주는 이주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큰일이기에 이주자들은 실제로 이주경험을 트라우마와 같이 여기기도 하며(Gold, 1992), 모국에 대한 그리움과 이주사회에서의 낯섦과 소외감, 상실감까지 느낀다고 한다(Brown and Perkins, 1992; Fried, 2000; Sampson and Gifford, 2010). 이는 그들이 떠난 장소에서 느꼈던 정신적·감정적 유대감(Low and Altman, 1992)인 장소애착이 끊기기 때문에 느끼는 상실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Berry의 문화적응모델에서도 거론된 적응과정 중 ‘적극적인 대응’으로서 이주사회에서 모국문화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들만의 장소(ethnic cluster)를 재조성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은 그들의 문화정체성을 보존하는 동시에 다양한 문화, 경제, 종교적 기회 제공 등을 통하여 이주사회 정착을 도와주는 기능도 수행하며(Mazumdar et al., 2000), 이주자 사회관계망을 조성하는데 일조하여(Lapierre and Sinha, 1993) 모국사회와 이주사회를 이어주는 중요한 통로이자 이민자들에게 ‘제2의 고향’인 ‘안식처’로서의 특수성을 가진다(Mazumdar et al., 2000; 서지수, 2012). 이렇게 새로운 정착지의 특정 장소에 있는 모국사회를 상징하는 기념비나 상점, 모국을 상기시키는 건물 외관은 그곳에 새로운 장소정체성을 부여하며 ‘커뮤니티 경관을 변모’시킨다(Kaplan and Recoquillon, 2014). 따라서 외국인 밀집지는 이주자들에게 중요한 상징적인 공간으로서 장소애착심의 대상으로 각인된다(Fried, 2000; Chang, 2000).

이렇게 외국인 밀집지는 이주자들의 장소애착심을 강화하는 특수성을 가지는데, 이주자들의 장소애착심이 밀집지를 지키려는 시민행동으로 이어지는지를 실증하는 연구들은 극히 드물다. Estrella and Kelley(2017)는 외국인 밀집지 내 그들의 모국 역사문화를 상징하는 여러 환경 요소들이 연구대상인 청소년들의 장소애착심을 강화시켰고, 이러한 애착심은 그 커뮤니티 환

경 및 문화 보존 의지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밝혀내었다. Rochelle and Shardlow(2012)는 영국 내 중국계 이민자들이 이주사회의 주요 행사에 관심을 가지고,⁵⁾ 사회적 교류를 많이 할수록 도시 내에서 봉사를 더 한다는 점을 알아냈다. 그 외 여성 결혼이주자들의 이주사회 내에서의 봉사활동 경험(김은재, 2018; 문경연, 2019)⁶⁾이나 이주자의 조직화⁷⁾에 대한 연구들은 봉사라는 시민행동의 동기와 봉사를 통해 이주사회에 적응하고 소속감을 가지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주자의 시민행동과 관련된 연구는 적고, 특히 외국인 밀집지라는 특정 장소 내에서의 시민행동을 보는 연구는 극히 드물다. 외국인 밀집지는 이주사회 적응을 도와주며 모국문화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들이 중심이 되는 장소’며 장소애착심의 대상으로서의 상징적 특수성을 가지기 때문에(Fried, 2000; Chang, 2000), 이러한 특수성이 이주자들의 시민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실제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국인 밀집지 내에서 봉사를 하는 이주자들의 봉사동기와 경험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이주자의 외국인 밀집지에 대한 장소애착심이 지역 내 봉사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주사회 내에서 봉사와 같은 시민행동을 하는 이주자들의 행동요인과 경험을 연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외국인 밀집지가 이주사회 내 다른 지역으로부터 점차 공간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밀집지 내 이주자들의 시민행동에 대한 연구는 외국인 밀집지에 대한 관리 또는 이주자 정책 등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기 때문이다.

-
- 5) 어떤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관심’ 또한 장소애착심의 척도로 볼 수 있다.
 - 6) 문경연(2019)은 대만의 중국인 결혼이주자들이 동향회를 통해 인맥을 넓히고 정부 지원을 통해 시작한 무용 프로그램을 스스로 발전시켜 무용단을 운영하면서 경제활동과 자원봉사를 하게 되는 등 이주사회 내 참여를 하게 되고, 나아가 자아실현과 소속감을 가지게 되는 과정을 그려내어 이주자 사회관계망과 정부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7) 이주자의 조직화와 관련된 연구 중 이춘호(2014)는 이주자들의 다양한 조직화 및 단체행동이 ‘동포’라는 정체성을 원천으로 표출된다는 점을 보여주며 지역 봉사와 같은 행동도 동포들이 이주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하였다.

3. 자료수집과 연구방법

1) 근거이론 방법

본 연구는 기존의 이론에 대한 검증 또는 “단순히 현상을 묘사하는 방식”을 지양하고(Vollstedt and Rezat, 2019) 특수한 사회현상의 진행 과정과 특정 연구대상의 경험을 실증적으로 연구하기에 수월한 Strauss and Corbin (1990)의 근거이론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이론 방법은 선행연구가 부족한 대상이나 분야를 연구하기 위해 경험과 현장 중심의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근거하여 귀납적으로 이론을 생성하는 질적 연구방법이다. 따라서 아직 외국인 밀집지를 근거지로 하는 이주자 주도의 봉사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이를 심층적으로 탐색하며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판단되었다.

연구자는 수집한 자료를 한 줄 한 줄 세밀하게 분석하면서 여러 개념을 도출하는 1차 개방코딩을 진행하는데, 각 개념마다 고유의 속성과 차원을 잘 담아내었는지 확인하며 개념을 도출한다. 그 다음 2차 코딩은 축코딩으로서 1차 코딩에서 도출한 각 개념들을 비교분석하면서 비슷한 개념들은 그룹화하여 이를 포괄하는 여러 범주와 하위범주를 도출하고 범주 간 관계를 분석하면서 1차 코딩의 수준을 발전시키는 과정이다. 2차 코딩 시 범주 간 연결, 통합, 또는 하위범주화 등 지속적인 범주 간 비교분석을 통해 범주 간 관계를 명료화한다. 각 범주에 대한 이론적 포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분석하며, 이 가운데 핵심범주를 선정한다. 마지막 단계인 3차 코딩은 선택코딩으로 모든 개념과 범주 간 관계와 속성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핵심범주와 중심현상을 도출하면서 이야기 윤곽을 서술하여 이론적 통합에 도달하는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단계별 분석을 통하여 외국인 밀집지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이주자들의 특징, 봉사를 하게 되는 직·간접적 계기와 조건들에 관한 개념과 범주들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화를 시도하였다. 이론

화는 Strauss and Corbin(1990)이 제시한 “코딩 패러다임(coding paradigm)”에 따라 이뤄졌는데,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도출된 개념과 범주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일반적인 틀이라 할 수 있다. 주체들의 행위와 상호작용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인과적 조건, 중심현상, 작용/상호작용, 결과를 중심축으로 하고, 여기에 맥락적 조건과 중재적 조건을 고려하도록 개념과 범주들을 배치한다. 이 연구는 이주자들의 시민행동이라는 행위와 장소애착심이라는 중심현상이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패러다임 모델은 매우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실제로 이와 유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패러다임 모델을 사용하여 개념과 범주들을 조직화하고 있다(남성진 외, 2011; 홍우영 외, 2018; 이자은, 2019).

2) 연구 사례지와 연구참여자 선정

본 연구는 서울의 비공식적 “차이나타운”으로 불리는 대림동 내에서 자율 방법대원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해온 이주자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대림동은 서울 내 외국인 인구 중 66.1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인(한국계 중국인 포함) 국적의 이주자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이다(19,684명). 대림2동의 경우 주민등록인구의 무려 42.25%나 외국인이다(서울통계, 2019). 이는 서울시 평균 3.38%를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서, 서울 내 대표적인 외국인 밀집지로 들 수 있다.

대림동은 전통적인 외국인 밀집지인 이태원, 한남동, 이촌동, 서래마을, 연희동 등과는 달리 1990년대 후반 및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인 밀집지로 형성된 공간이다(박세훈 외, 2009). 인근 가리봉동이 본래 1990년대 중후반부터 구로공단 외국인 노동자들의 배후주거지 기능을 수행하며 점차 한국계 중국인(중국동포) 밀집지역으로 변모하였는데, 2000년대 가리봉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자 많은 중국동포들이 거처를 교통편의 및 저렴한 임대주택 등의 이유로 대림동으로 옮기면서 점차 중국동포들의 대표적인 밀집지역으로 활성화되었다(양한순, 2015). 따라서 기존 거주인구

가 빠져나온 가리봉동은 주거환경이 더욱 낙후되고 공공시설 등의 기본 인프라가 부족하며, 실제 공장 등이 밀집한 준공업지역에 바로 연접하여 이주자들이 처음 입국하였을 때 잠시 지내는 임시적인 공간으로의 특성을 가진다(박세훈 외, 2009). 이와는 대조적으로 대림동은 학교, 병원, 경찰서, 시장, 서울시 다문화빌리지센터 등 다양한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고, 주거중심 환경의 특성을 가져 2010년대 이후로 중국인(비한국계 중국인)들의 부동산 투자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이화용·이영민, 2018). 같은 중국동포 밀집지역이더라도 대림동은 안정적이고, 오래 정주하고자 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인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밀집지역 중에서도 시민행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임시적인 공간이 아닌,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공간이기도 하며, 중국동포 문화의 상징지로 인식되는 대림동을 연구 사례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2010년에 대림동 내 범죄율을 낮추고 동네를 스스로 지키기 위하여 6명의 중국동포들로 구성된 '외국인자율방범대'가 공식적으로 발족되었고, 2019년에는 55명으로 규모가 점차 커져 매 주말(금요일부터 일요일) 저녁마다 대림동을 순찰하며 범죄예방 활동을 벌인다. 본 연구는 특정 분야에서 오랜 기간 종사했거나 인적 네트워크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에게 연구 참여자 소개를 받고 연구 참여자를 선정(김은재, 2018)하는 '세평적 사례선택 방법(reputational case selection)'을 적용하여, 1년 이상 대림동 외국인자율방범대원으로 활동해 온 이주자 15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봉사 경험에 대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15명의 연구참여자 중 40.0%는 남성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51.9세로 30대부터 60대까지 분포한다. 53.3%는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였으며, 66.7%는 한국 국적으로 귀화하였다. 국내 거주기간은 최소 9년에서 23년으로 평균 16.3년이고, 대림동에서 봉사기간은 평균 6.7년이다. 주택점유 형태를 보면 73.3%가 차가임대로 거주하고 있다. 60%는 대림동 주민이었고 26.7%는 대림과 가까운 동네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안산이나 잠실처럼 50분 이상 먼 거리에서 오는 주민들도 있다. 대림동 주민의 경우 거주기간이 평균 14.5

〈표 1〉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용) 번호	연령	성별	직업	기혼, 귀화여부	주택 점유 형태	국내 거주기간 (단위: 年)	대립동 봉사기간 (단위: 年)	주거지	대립동 거주기간 (단위: 年)
1	57	남	사무직	기혼, 홀로 거주	자가	21	7	대립	21
2	55	남	전문 유투버	기혼, 홀로 거주	차가	15	7	대립	15
3	61	남	기술근로자	기혼, 귀화	차가	14	7	대립	12
4	49	남	기술근로자	기혼	차가	16	7	대립	15
5	52	남	기술근로자	기혼	차가	14	7	대립	13
6	48	남	기술근로자	기혼, 귀화, 한 국인 배우자	차가	20	7	대립	20
7	45	여	보험설계사	기혼, 귀화자, 한국인 배우자	자가	15	8	대립	10
8	35	여	다문화교육 강사	기혼, 귀화자, 한국인 배우자	차가	14	1 (다른 봉사 4)	잠실	
9	56	여	사무직	기혼	차가	9	4	대립	5
10	56	여	서비스직(식당) 중국어 통번역	미혼, 귀화자	차가	17	7 (다른 봉사 13)	안산	
11	50	여	가정주부	기혼, 귀화자, 한국인 배우자	차가	16	7 (다른 봉사 12)	신대방	
12	49	여	가정주부	기혼, 귀화자, 한국인 배우자	차가	15	7 (다른 봉사 12)	신대방	
13	62	여	서비스직(식당) 중국무용 강사	기혼, 귀화자, 한국인 배우자	자가	23	7 (다른 봉사 11)	대립	20
14	53	여	중국어 강사	기혼, 귀화자, 한국인 배우자	차가	17	8 (다른 봉사 10)	신대방	
15	51	여	가정주부	기혼, 귀화자, 한국인 배우자	자가	18	9 (다른 봉사 8)	관악구	

년이다. 직업은 기술근로자가 많은 편(5명)이나, 사무직, 전문 유투버, 보험설계사, 다문화교육 강사, 중국어 통번역 및 강사, 전업주부 등으로 다양하다(〈표 1〉참조).

3) 자료수집과 코딩

모든 자료수집, 분석방법, 자료관리 등은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IRB) 심의 통과 후 진행하였으며, IRB 승인 사항을 준수하였다. 심층면담은 연구목적 및 자료수집 방식과 보관방식에 대한 충분한 설명 후 서면동의를 마친 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심층면담, 참여관찰, 관찰기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면담은 주말마다 연구 참여자들이 봉사를 위해 모이는 초소에서 봉사 전 후에 동의를 얻고 녹음하며 진행하고 다음과 같은 반구조화된 질문을 활용하여 최대한 풍부한 내용을 담고자 하였다.

“대림동은 귀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대림동에서 봉사를 어떻게 하게 되셨나요?”

“봉사를 하는 이유와 봉사에 대한 경험을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봉사를 하면서 삶과 대림동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자료수집 기간은 2019년 10월 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약 2개월이고, 개별 면담 5회(20~40분), FGI 2회(80분), 직접 대림동 순찰 봉사에 참여하는 참여관찰 14회, 그 외 25회 대림동 현장조사를 병행하였다. 면담 후 자료분석을 통해 개념과 범주를 도출하고 이론적 포화상태에 이르렀을 때 더 이상 추가면담을 진행하지 않았다.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한 음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녹취록을 작성하였고, 이에 대한 1차 개방코딩을 진행하여 개념을 추출하였고, 2차 축코딩을 통하여 그 안에서 주요 하위범주를 도출하고 개념간의 연계를 통한 범주화 작업을 하고, 3차 선택코딩으로 핵심범주와 중심현상의 도출 후 선택코딩을 시행하며 패러다임 모델을 구축하고 이야기 윤곽을 서술코딩 하였다. 매 단계마다 코딩은 연구진들이 녹취록과 이전 단계의 코딩 결과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유사한 개념과 범주를 도출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연구진 간 의견 불일치가 있을 때는 각 개념화와 범주화 결과를 놓고 해석의 합리성과 용이

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중심현상은 연구 목적인 시민행동의 핵심 요인과 직결되는 요소로서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이 언급하고 있고, 다른 범주들과의 관계 속에서 중심을 잡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항으로서 ‘장소애착심의 형성’을 선정하였다. 작용/상호작용은 주체들의 연구 대상 행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연구에서는 이 연구에서는 ‘봉사(시민행동)’를 선정하였다. 각 단계별 도출된 개념과 범주 간 관계를 지속적으로 비교분석하며 단계 사이를 왕복하면서 이론의 명료화와 통합을 하고자 하였다.⁸⁾

4. 대립동 이주자의 장소애착심 및 시민행동 과정

1) 패러다임모델에 따른 분석

면담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앞서 제시한 근거이론 방법에 따라 분석하고, 한 문장마다 개념을 추출하는 줄코딩 분석을 하고 유사한 개념들을 포괄하는 하위범주와 하위범주들을 포괄하는 범주를 도출한 결과 총 54개의 개념, 38개의 하위범주, 12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개방코딩 후 축코딩의 결과로 다음과 같이 패러다임 모델 내 구성요소들인 중심현상, 맥락적 조건과 중재적 조건작용과 작용/상호작용 전략 및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였다.

(1) 인과적 조건

인과적 조건은 중심현상을 초래하는 조건들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개인

8) 예로 ‘제2의 고향, 제2의 중국’이라는 개념은 “대립동이 고향처럼 느껴져요. 애착심이 생기고”, “대립동은 나의 동네고, 너무 좋은 곳이다. 내 고향이다”, “제2의 중국, 제2의 차이나”, “제2의 고향” 등의 참여연구자들의 발언에서 도출하였다. 지면관계상 코딩 과정을 모두 보여줄 수 없지만 독자들의 요청이 있을 시 IRB 승인 조건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음을 밝혀둔다.

속성, 한국사회 내에서 가지는 동포-공동체 의식, 동네(대림동)에 대한 긍정적 인지, 한국사회 적응 및 일체화 등 네 가지 인과적 조건이 도출되었다. 이 모든 조건들은 본 연구의 목적인 외국인 밀집지역 내 시민행동의 요인을 찾는 데 있어 중요한 조건들이지만, 이러한 조건의 충족만으로 시민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① 개인 성향

봉사자들은 보통 다른 동포단체에서 체불임금을 받아주거나(연구참여자 10), 환경미화 봉사 및 무료미용 봉사(연구참여자 9) 등 다른 단체에서도 봉사 활동을 하는 등 남다른 봉사심 및 봉사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 또한, “내가 아니면 안 될 어려운 일”을 해야겠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스스로 동네와 동포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자주성을 보였다. 연구참여자 1은 “동포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게 비춰질 때가 있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조선족이라는 그게 있어서 스스로 문화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한다. …… 누군가는 나서서 해야 하니까. …… 우리가 안하면 누가 또 어떻게 하겠어요? …… 우리가 스스로 조선족이라는 그게 있어서 스스로 문화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7은 “내가 열심히 하다보면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연구참여자 2는 “한국사람들도 …… 우리도 같이 잘 살려고 노력하니까.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등, 이들은 이주사회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인정욕구가 강하였다. 또한, 중국에서 익숙해진 단체활동 문화 경험 등이 작용하였다.

② 한국사회 내에서 가지는 동포공동체 의식

봉사자들은 중국동포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동포 이미지”를 여러 번 거론하면서(연구참여자 1, 2, 3, 5) 한국사회 내에서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중국동포들의 이미지 전환을 위해 그들의 주 활동지인 대림동에서 봉사를 한다. ‘그들’은 ‘내국인 주민’과의 화합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하며 중국동포들의 이미지를 걱정한다. 예컨대 연구참여자 5는 다음과 같이

이를 설명한다. “특히 동포 이미지가 더 나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 (봉사를) 더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 나서서 동포와 동네 이미지 개선을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주자들에게 있어 이주자 공동체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들은 이주 사회에서 ‘원자’와 같이 한 개인으로서 실존하기보다는 자신의 출신 지역과 연계된 민족문화 집단의 일원으로서 인식되고 대우받는다. 이주자들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 능력과 태도에 앞서 자신이 속한 민족문화 집단에 의해 평가 받고 인정받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자 공동체의 이미지와 평판이 곧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는 ‘이주자 공동체 의식’으로 발전하게 되고, 이것이 자기 민족 집단이 많이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밀집지에 대한 관심과 애착으로 나타나며, 나아가서 이 지역과 관련된 시민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일반적인 시민행동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고, 이주자 시민행동, 특히 외국인 밀집지에서서만 발견되는 특수한 과정이어서 주목해야 한다.

③ 한국사회 적응 및 일체화

한국사회 적응 및 일체화는 봉사자들의 참여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초적인 조건으로 볼 수 있었다. 봉사자들은 재정적으로 안정적이든지, 자가주택 소유자라든지, 또는 자식들을 다 키우고 시간적 여유가 있든지, 한국사회가 중국보다도 살기 편해졌거나(역문화쇼크), 내국인들과 사회적으로 교류하고 내국인 친구를 사귀는 등 한국사회에 적응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처음에는 봉사라는 것을 모르죠. 저도 3년 만에 97년에 (한국에) 오고 2000년도 되셔야 봉사를 할 수 있었어요. 적응이 급급하니까. 돈 벌러 왔으니까.”_ 연구참여자 11

“처음에는 봉사라는 것을 몰랐죠. 먹고살기 바쁘고.”_ 연구참여자 12

이와 같이 연구참여자 11과 12는 이주 후 어느 정도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나서야 봉사를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연구참여자 10도 한국에 온지 3년이 지나서야 다른 중국동포들의 체불입금을 받아내는 봉사활동을 하다가 대림동 방법대원으로도 일하게 되었다고 한다.

한국사회 적응과 일체화라는 조건은 이주자의 시민행동과 장소애착심을 설명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주 사회의 낮은 환경에서 이주자들은 심리적·사회적·경제적 어려움에 노출되어 이를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다가온다.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이주자들은 사회적·경제적 안정성, 주거안정성, 거주기간, 생활 적응 등의 측면에서 이주자들이 안정을 찾고 한국사회에 충분히 적응할 때, 자기중심의 삶의 테두리를 벗어나 주위를 가꾸는 시민행동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내국인과 달리 이주자들은 시민행동을 보이기까지 여러 조건들이 만족되어야 하는데, ‘한국사회 적응’이 그 중 가장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일 수 있다.

④ 동네(대림동)에 대한 긍정적 인지

마지막 인과적 조건으로 그들의 문화가 담겨진 대림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봉사자들은 대림동 내 이웃주민들이 친절하다고 생각하거나(연구참여자 7, 10) 미디어나 밖에서 비춰지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동네가 안전하다고 인지하는 특성을 보인다. 다음과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대림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

“여기 (봉사하러) 오게 된 것은 뭐 다른 거 없어요. 여기서 안 산 다 해도 여기 동포들이 밀집해서 사는 곳이잖아요.”_ 연구참여자 10

“대림동은 중국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라서…… 중국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이미지를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_ 연구참여자 9

“(대림동은) 다른 데보다 만나기 좋은 곳…… 여기가 동포들에게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거기(고향)랑 음식이나 문화와 거의 비슷한 곳이에요.”_ 연구참여자 3

“〈청년경찰〉 같은 영화 보고 사람들이 대림동에는 나쁜 사람들이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이고요…… 동네는 후지지만 아름다운 곳이라

생각해요.”_ 연구참여자 7

연구참여자 3, 9, 10이 여기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들은 대림동을 중국 이민자들의 문화를 대표하며 중국동포들이 가장 밀집하는 상징적 장소로 인지한다. 그런 만큼 이들은 지역 이미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2) 중심현상: 장소애착심 형성

중심현상은 연구 목적인 시민행동의 핵심 요인과 직결되는 요소로서 심층 면담 자료에서 대부분의 연구참여자에 의해 빈번히 강조된 ‘장소애착심의 형성’으로 선정하였다.⁹⁾ 면담에 참여했던 봉사자들은 대부분 대림동에 대한 애착심이 방법활동이라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강력한 동기로 작용하였음을 지적하였다. 봉사자들은 장소애착심의 여러 구성요소 중 대림동에 대한 장소의존성(Stokols and Shumacker, 1981), 장소정체성(Proshansky, 1978), 장소애정(Kals and Maes, 2002)을 보인다. 대림동이 교통도 편리하고 주거비용도 경제적이며 중국음식, 물건, 엔터테인먼트, 중국동포 공동체의 만남의 장소로서 중국에 대한 향수 등을 “다 해결할 수 있고” 만족시켜주기에 그들이 의존할 수 있는 장소라고 인식한다(연구참여자 1, 3, 8, 13).

봉사자들은 대림동을 “우리가 사는 공간”, “나의 동네”, “고향”, “제2의 중국” 등 본인의 문화자산과 정체성의 일부로 생각하는 등 장소정체성의 면모를 보인다(연구참여자 3, 5, 7, 10~15). 연구참여자 7은 대림동이 고향처럼 느껴져서 애착심이 생기고, 그래서 본인이 사는 공간을 직접 지키게 되고 이웃과 (내국인 포함) 잘 지내게 된다고 하였다.

봉사자들은 대림동에 대하여 “추억의 장소”며 “떠나기 싫고” 심지어 대림동에서 “살지 않더라도 특별하게 여기고 가꾸고 싶어”하는 등 강한 장소애착심을 보인다.

9) 앞서 인과적 조건으로 설명한 한국사회 적응도 자주 언급되기는 하였으나, 이것은 이주자들의 시민행동을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모든 이주자들이 시민행동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작은 가게에서 양꼬치 등 팔다가 부자 되고, 우리가 (순찰하면서) 한 바퀴씩 돌아보면서 본 가게들 보면 …… 이런 게 다 곳곳에 추억거리 …… 대림동에서 오래 살았고, 추억도 많고 해서 애착심이 생기죠, 그래서 직접 순찰도 들고 동네도 지키고 …… 제가 대림동을 떠나기 싫어하는 거는 …… 너무 익숙해졌고, 사람들, 동네에 대한 정도 많이 들었고, 중국 사람들도 같이 중국식당에 가게 되니까 너무 좋아요.”_ 연구참여자 3

연구참여자 3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은 대림동에서 봉사를 포함한 다양한 경험과 추억을 쌓았기에 그들에게 의미 있는 공간이 되어 장소애착심이 형성된 것이다.

(3)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은 중심현상에 영향을 주는 거시적 조건이며 작용/상호작용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 맥락적 조건은 한국사회 내 이주자들과 밀집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이의 하위범주에는 ‘실제 범죄사건이나 이주민과 내국인간의 충돌 발생’, 과장되거나 때로는 왜곡되는 ‘부정적인 대중매체 내 이미지’, 그리고 이로 인한 대림동과 중국동포에 대한 ‘부정적 여론’ 형성이 포함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대림동 내 일어난 실제 범죄나 사건은 영화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과장·왜곡되고, 결과적으로 중국동포와 대림동 모두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으로 변하게 된다고 토로했다(연구참여자 1, 2, 3, 5, 8, 10).

(4)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은 본 연구에서 중심현상으로 도출된 ‘장소애착심’과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 발견한 ‘지역 내 봉사활동’에 직접적이고 종합적인 영향을 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장소애착심과 봉사활동을 중재적 조건으로서 연결하는 것은 ‘사회관계망’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사회관계망은 개인적 관계와 사회적 관계(단체)로 구분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회관계망이 점차 체

계화되는 특성을 갖는데, 우리는 이러한 점들을 하위범주로 도출하였다.

개인적 사회관계망은 친구나 지인, 사회적 관계(단체)는 중국동포 연합회나 결혼이민자 모임 밴드 같은 SNS그룹을 의미하는데, 봉사자들은 이러한 채널을 통해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연구참여자 1~3, 9~12, 14, 15). 두세 명의 친구들이 모여서, 점차 큰 모임이 되고, 체계적인 협회가 되고, “어차피 모이는 김에 여기서 좋은 일 하자” 하여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사회관계망을 통해 시작된 모임이 정기적으로 진행되면서 체계화된 것이다(연구참여자 2, 3).

(5) 작용/상호작용

중심현상에 대한 의도적 반응 및 전략인 작용/상호작용은 ‘지역 내 봉사활동’으로 나타났다. 이주자들의 밀집지인 대림동에 대한 장소애착심이 형성됨에 따라 그 지역을 개선하는 봉사활동으로 이어진 것이다. 연구참여자 9는 “(대림은 제게) 두 번째 중국, 고향이에요. 대림에서 계속 살면서 애착심도 크고 이제 내 고향같다는 생각도 더 들어요. 힘닿는 때까지 여기서 살고 싶어요. 봉사도 그렇고요”라고 밝혔다. 연구참여자들은 대림동에서 오랫동안 봉사를 할 의지와(연구참여자 9~14), 방법활동 외에도 대림동을 위한 봉사를 할 의향이 있었다.

(6) 결과

작용/상호작용 전략인 ‘지역 내 봉사’로 인한 결과는 개인적·사회적·환경적 효과와 봉사활동 자체의 발전으로 나타났다. 먼저 개인적 효과를 보면, 봉사참여자들은 뿌듯함과 자부심을 느끼는 등 자아존중감이 강화된다. 또한 주는 기쁨에서 오는 삶의 질 향상과 사교적 효과를 경험하며, 그들의 장소애착심이 서울과 한국 전체로 확장되는 공간적 확장효과를 경험한다. 연구참여자 12는 “비록 외국인이지만” 경찰청에서 준 자율방법대원복을 입고 같이 사는 공간을 가꾸고 봉사하는 데서 뿌듯함을 느낀다고 하였다. 다른 봉사자는 “아니야 우리는 외국인이야. …… 다문화야……”라며 이주사회에서 스스

로 위축되는 틀에서 벗어나서 “아니 우리 다 같이 살고 있는 곳에서 이렇게 훌륭하고 멋지게 살고 있는데”라며 생각을 전환하게 되고, 나아가서 서울과 대한민국에 대한 애착심이 더 생긴다고 한다(연구참여자 8).

사회적 효과로는 새로운 이주자들도 계속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하면서 이주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잘 적응할 수 있게 하는 효과와 다른 이주자 및 내국인 친구들도 더 생겨 관계가 호전되는 효과를 들 수 있다. 또한 가족과 동네이웃 등 주변 사람들, 공공기관과 한국사회에서 인정해주는 효과, 주변사람들과 자녀들에 대하여 동네를 아끼는 태도에 대한 각성과 교육효과, 동포사회 연대 및 다른 봉사활동이나 사회적 참여로 연계되는 등 이주사회 내에서 사회참여 범위가 확장되는 효과 등이 확인된다. 연구참여자 1, 13은 봉사하면서 내국인들, 특히 대림동 내 내국인 상점 주인들과 사이도 좋아졌다고 한다. 동포사회 및 이주사회에서의 참여 범위 확장과 관련하여 연구참여자 3은 다른 봉사자들과 ‘더불어동포연합회’에서 함께 활동도 하게 되며, 서울시 장 선거캠프 내 ‘귀환동포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었다고 한다.

환경적 효과로는 자율방법활동을 통해 지역의 위생, 보안, 이미지 등이 개선된 것을 들 수 있다. 대림동은 대중매체에서 비취지는 ‘지저분하고 위험한 곳’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점차 탈피하고 중국음식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서 내국인 방문객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연구참여자 10은 2010년 지역 시장에는 바닥의 쓰레기 때문에 발 디딜 틈이 없었으나, 그들이 청소봉사를 하면서 많이 좋아졌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봉사로 인해 ‘봉사 자체의 발전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참여인원이 점차 늘어날수록 봉사 프로그램의 규모도 커지고, 중국동포 단체와 연결되고 지역 경찰과 파트너십도 맺게 되는 등 체계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한다(연구참여자 2, 13). 실제로 2014년 영등포구청, 영등포 경찰서와 중국동포회가 협력해서 대림역 주변에 초소를 설치하여 방법대 활동의 근거지로 사용해 오고 있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이들은 대림동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심이 강화되었다.

〈표 2〉 연구결과의 범주화

개념	하위범주	범주	패러다임 요소
우리가 스스로 동네와 동포 이미지 개선	자주성	개인 성향	인과적 조건
내가 아니면 안될 어려운 일	사명감, 책임감		
중국에는 단체활동을 많이 하는 문화	문화적 특성		
근면성실함	봉사적 성격		
봉사심, 열정이 많음			
인정욕구			
한국사회에 비추는 동포이미지 의식	동포이미지 의식	동포공동체 의식	
동포들과 내국인 주민간의 화합 필요성	내국인과의 공존 필요성 인지		
동포 최대 집중지로서 관리 필요성 인식	동포 상징지로 인식	동네에 대한 긍정적 인지	
사람들이 좋음	동네 사람들 인지		
안전 인지도	동네 안전 인지		
대림동에서 자기주택 마련	사회경제적 여유 생김	한국사회 적응 및 일체화	
사는데 여유가 생김			
역문화쇼크(reverse culture-shock: 외국에서 오랜 생활한 사람이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느끼는 소외감)	한국사회가 편해짐		
한국인 친구들은 많음	내국인과의 교류로		
한국인 이웃들과 살며 일하며 서로 이해	서로 이해		
적응시간이 있음	시간의 경과		
교통 편의성	장소의존성 (Place Dependence)		장소애착심
다 해결할 수 있는 곳			
만남의 장소	장소정체성 (Place Identity)		
제2의 고향, 제2의 중국			
동포의 동네	장소 애정 (Place Affection)		
추억의 장소			
대림동을 떠나기 싫음			
대림동에서 살지 않아도 특별하게 여기고 기쁘고 싶음			
개인적 사회관계망(지인, 친구)	개인적 관계	사회관계망 형성	중재적 조건
동포연합회나 결혼이민자 밴드를 통해 봉사 접해	사회적 관계(단체)		
개인이 협회가 되고, 협회에서 단체 봉사활동을 건인	사회관계망 체계화		

개념	하위범주	범주	패러다임 요소
실제 사건이나 충돌 발생	실제 범죄율 및 사건발생	이주자 및 밀집지에 대한 여론	맥락적 조건
대중매체(영화 '청년경찰')의 동네에 대한 왜곡	부정적 매스컴		
동포이미지에 대한 부정적 여론	사회 내 동네와 동포에 대한 부정적 여론 형성		
꾸준한 봉사	지역 봉사활동	봉사 (시민행동)	작용/상호작용
뿌듯함과 자부심을 느낌	자존감 강화	봉사의 개인적 효과	결과
'외국인' 다문화 가정' 타이틀을 넘어서는 자존감 형성			
주는것보다 더 많이 채워짐을 느낌	주는 기쁨으로 삶의 질 향상		
삶의 질 개선	사회활동으로서의 효과		
친구와의 사교장, 재미	장소애착심의 공간적 확장		
서울과 한국에 대한 애착심으로 확장	다른소외자 발생 예방		
새로 온 이민자 포용			
내국인 친구도 더 생김	사회관계망 확장		
외국인 친구도 더 생김			
내국인-외국인 관계 호전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관계 호전		
동네주민들과 가게 주인들이 고마워함	주변과 사회에서의 인정		
가족의 인정			
공기관/한국사회에서의 인정	각성과 교육의 효과		
주변 사람들의 각성 효과 (동네를 아끼는 태도)			
자녀들 교육 효과			
지속봉사 및 다른 봉사활동으로 연계	사회참여 범위 확장		
다른 사회참여와 연계			
동포사회 연대	동포사회 연대		
실제로 동네환경과 치안 개선	환경과 치안개선	봉사의 환경적 효과	
대림동에 내국인 방문 증가	동네의 안 좋은 이미지 극복, 명소화		
그전에는 체계적인 봉사가 아니었음	봉사의 체계화	봉사활동 자체의 발전	
동네 애착심 강화	동네애착심과 봉사의 선순환		

“(봉사로 인해) 대림동이 더 좋아지고 대림동이라는 동네를 더 아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고향 분들의 만남의 광장 같은 곳에서 …… 다 힘들게 노동하고 와서 일주일에 한 번 (봉사) 와서 친구도 만나고 고향 음식도 먹으면서 이곳에 대한 애착심이 더 많이 생기는 거죠.” _ 연구참여자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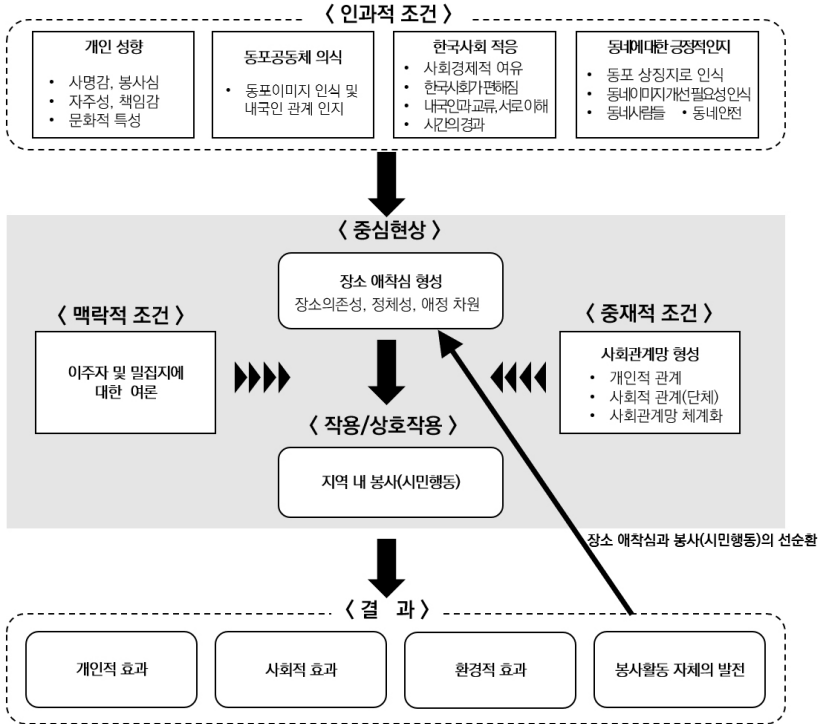
즉, 연구참여자 8의 발언에서 드러나듯이, 장소애착심으로 인해 지역 내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다시 장소애착심이 더욱 강해지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났다.

2) 이주자의 장소애착심 및 시민행동 모델

이상의 세부 분석을 바탕으로 외국인 밀집지 내 이주자의 장소애착심의 형성과 시민행동 참여 과정에 관한 메커니즘을 요약하여 <그림 1>과 같이 모델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선택코딩을 통해서 도출한 핵심범주는 ‘외국인 밀집지에 대한 장소애착심이 지역 내 봉사로 이어진다’이다. 이러한 핵심적 과정은 이주자 개인의 성향, 동포공동체와 한국사회 인식, 한국사회 적용, 동네에 대한 긍정적 인식 등 인과적 조건이 원인이 되어 시작된다. 여기에 이주자와 외국인 밀집지에 대한 여론이라는 맥락적 조건과 사회관계망이라는 중재적 조건이 측면에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지역 내 봉사 활동이라는 작용과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개인적, 사회적, 환경적 효과와 시민행동 자체에 대한 효과가 나타난다.

첫 번째 인과적 조건으로 개인 성향을 들 수 있다. 외국인 밀집지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이주민들은 남다른 사명감, 봉사심을 가지고 그들 “스스로”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고 문제해결을 하고자 하는 책임감과 자주성을 보이는 경향이 많다. 두 번째 조건으로서, 이들은 공동체의식이 뚜렷하고 한국사회 내 그들의 이미지에 대하여 민감하게 인식하고 내국인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 세 번째 조건으로서, 이들은 국내거주기간이 9년에서 21년으로 장기간 거주했으며 Putnam(2000)의 연구대로 일부는 자가주

〈그림 1〉 외국인 밀집지 내 이주자의 장소애착심과 지역봉사 참여 경험 패러다임 모델



택을 소유하는 등 사회경제적 여유가 있다. 그러나 차가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기술근로자들도 포함되어 있어 모두 사회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들은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여 시간적 여유도 있으며, 한국 사회가 중국보다 더 편해지는 등 한국사회에 상당히 적응한 편에 속한다. 네 번째 조건으로서, 이들 대부분이 대림동 또는 근처에서 거주하고, 대림동 거주민인 경우 장기거주를 하고 있어 앞서 검토한 선행연구처럼 실제 거주기간과 장소애착심 및 시민행동 간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Goudy, 1982; Lalli, 1992; Prezza et al., 2001; Lewicka, 2005, 2010). 그러나 멀리서 봉사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어 외국인 밀집지 거주 자체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

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대림동이라는 외국인 밀집지를 그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국동포들의 상징지로 인식(Mazumdar et al., 2000; 서지수, 2012)하고 있었으며, 동네에 대한 이미지 개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외부에서 비춰지는 부정적인 이미지와는 달리 동네를 안전하게 여기고 동네 이웃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인과적 조건들이 성립했을 때, 이들은 이주자로서 Fried(2000)와 Chang(2000)의 연구처럼 대림동이라는 외국인 밀집지에 대한 장소애착심이 형성되고, 이를 지키고자 지역 내 봉사를 하게 된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처럼 장소애착심은 시민행동에 직접 영향을 준 것이다(Galster and Hesser, 1982; Vaske and Kobrin, 2001; Brown et al., 2004; Lewicka, 2005; Palmer, Perkins and Xu, 2011; Wu et al., 2019; Song and Soopramanien, 2019)

그런데 장소애착심이 지역 내 봉사라는 시민행동으로 연결되는 데는 맥락적 조건 역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이 동네에서 범죄가 일어났거나 이에 대해 다양한 매체에서 우범지역으로 보여줘 한국사회 내 이주자와 외국인 밀집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었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주자들이 봉사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게 된 점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장소애착심이 봉사로 이어지기 위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재적 조건은 '사회관계망'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Lewicka(2005)의 연구처럼 장소애착심은 결국 누군가의 소개나 중국동포 단체의 매개를 통해서 봉사활동으로 연계된 것이다.

이러한 시민행동의 결과는 여러 가지 긍정적 결과를 가져온다. 먼저 개인적 차원에서 이주자들은 봉사를 통해 이주사회에서 '외국인, 다문화 가정'이라서 못해라는 피해의식을 불식하고 자아존중감이 강화되고(김은재, 2018), 활발한 사회생활을 하게 되어 개인의 삶이 바뀌고 장소애착심이 도시, 나라 전체로 확장되는 효과를 경험한다. 사회적 차원에서 이러한 시민행동은 이주자들의 포용과 이주사회 적응을 촉진하고, 사회관계망을 내·외국인 구분 없이 확장하며, 이주자들에 대한 주변과 사회에서 인정을 촉진한다. 이로써 이주사회에서 이주자들의 사회참여 범위를 확대시키며, 봉사를 통해 동네를

아끼는 태도가 주변에 전파되는 각성효과도 발견할 수 있다. 환경적 차원에서도 환경과 치안이 개선되고 동네 이미지도 좋아져 지역적 명소화에 기여하는 환경적 효과도 있다. 마지막으로, 봉사자들이 늘고 시간이 지날수록 봉사 자체가 체계적으로 발전하며 봉사활동을 통해 장소애착심이 다시금 강해지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진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Toomey et al.(2020)은 봉사료 인한 장소애착심이 강화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를 통하여 장소애착심의 효과로 시민행동이 우러나오게 되고, 시민행동인 봉사를 통해 다시금 장소애착심이 강화된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5. 결론 및 시사점

지금까지 우리는 서울의 대표적 외국인 밀집지인 대림동을 사례로 이주자들의 자발적 시민행동의 전 과정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참여자들의 봉사심, 사명감과 같은 개인적 성향, 장소에 대한 긍정적 인지 등이 장소애착심을 매개로 시민행동을 일으키는 인과적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참여자들의 사회관계망, 시민사회 여론 등이 중재적·매락적 조건으로서 시민행동의 실천에 영향을 준다. 이 연구는 시민행동 및 장소애착심에 관한 이러한 일반적 이론을 재확인하는 것을 넘어, 외국인 밀집지 내 이주자 시민행동의 특수성에 관한 중요한 발견들을 보여준다.

우선, 외국인 밀집지 내 이주자들이 시민행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주 사회의 적응’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결과는 이주자들이 한국사회에서 안정을 찾고 충분히 적응할 때, 주위 환경을 개선하는 봉사활동과 같은 시민행동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내국인과 달리 이주자들이 시민행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한국사회 적응’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시민행동 이론에서는 ‘생활의 안정’과 같은 매우 일반적이고 중요도가 떨어지는 조건이 제시되기도 하지만, 이주자들에게는 이 요소가 장소애착심과 시민행동을 일

오키는 핵심적인 인과적 조건을 형성한다. 이주자들은 이주 사회에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잘 적응해야만 장소애착심도 갖고 시민행동에도 나설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역으로 시민행동의 결과로서 장소애착심이 증대되고 이주 사회의 적응이 촉진되는 선순환의 경향도 보여준다. 다음으로 '이주자 민족공동체에 대한 의식' 역시 일반적 시민행동 이론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요소이지만, 이주자들의 시민행동에서는 특히 중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이주자들이 자신이 속한 민족문화 집단의 일원으로서 평가받고 인정받기 때문에, 이주자 집단의 이미지와 평판을 중시하고 '이주자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된다는 사실과 연관되어 있다. 이주자들은 이주자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의식을 갖고, 그 공동체의 근거지 역할을 하는 밀집지에 대한 관심과 애착을 갖게 되며, 나아가서 이 지역과 관련된 시민행동에도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 역시 이주자 시민행동, 특히 외국인 밀집지에서만 발견되는 특수한 현상이어서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이주자 시민행동에서도 일반적인 시민행동 이론이 강조하는 조건들이 인과적 조건이나 중재적 조건으로 작용하고, 장소애착심과 시민행동의 긍정적 관계 역시 재확인 된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장소애착심이 시민행동으로 이어지고, 시민행동이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를 개인적, 사회적으로 발생시키고, 이것이 해당 장소에 긍정적 변화를 야기하여 다시 장소애착심을 강화시키는 선순환이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이 연구는 장소애착심이 앞서 강조한 이주자 공동체 의식과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주자 밀집지는 공통의 문화와 생활의 필요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형성되어 이주자들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주자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며 모국문화를 상징하는 가치 있는 공간으로서의 특수성을 가진다. 따라서 이들에게 이주자 밀집지는 자신의 정체성과 연결되며 이주자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는 매개로서, 단지 그들이 자주 가는 장소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들은 비록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이곳을 '제2의 고향'으로서 애착심을 갖게 되고, 이 장소를 거점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벌이게 된다. 이 애착심

은 꾸준한 봉사를 통해 도시 전체, 나아가 한국에 대한 애착심으로 확장되는 파급효과를 가진다. 이 연구는 이주자들도 애착심을 가지는 공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며, 이는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발견을 바탕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이주자들의 시민행동의 긍정적 효과를 고려하여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주자들의 시민행동은 개개인의 자존감, 삶의 질 향상에 그치지 않고 커뮤니티 강화와 환경 개선, 그리고 장소애착심 강화에 따라 시민행동을 더욱 실천하는 파급력 있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들이 각자 실천하는 시민행동은 그들의 이주자 커뮤니티와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듯 이주자들도 더 이상 한국사회에서 단지 ‘적응’을 목표로 사회 변두리에서 지켜보는 대상이 아닌 적극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으므로, 그들을 보는 사회적 관점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외국인 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무부 지침¹⁰⁾에 따라 서울시는 ‘2차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2019)’을 수립하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동포 밀집지역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 서남권 민관협의체’ 및 ‘외국인 주민대표자회의’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표성 강화 및 정기적인 운영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2019, 서울시), 아직은 과도기적 단계로 볼 수 있다.

둘째, 외국인 밀집지에 대한 이주자들의 애착심은 지역사회 참여 및 한국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중대한 역할을 하므로 이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대립동은 인근 외국인 밀집지역인 가리봉동과 비교하여 물리적인 환경이 양호하고 정주환경이 안정적이며 다양한 편의가 제공되어 이주자들이 장기 거주하고자 하는 공간으로서의 특성이 있기에 그만큼 장소애착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밀집지 내의 안전

10) 법무부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18-2022)에는 이주자들의 지역사회 정책참여활동 기회 확대를 위해 지자체별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를 운영하고 외국인주민들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이나 위생 등 동네를 긍정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이주자 생활양식에 맞는 다양한 편의시설의 제공과 문화적 상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 이주자들이 더 큰 장소애착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중국문화와 관련된 상업시설이 집적한 대림역에서부터 중앙시장까지 그 특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구역¹¹⁾을 확대 지정하여 공간의 용도와 형태를 관리하는 물리적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그곳에서 시민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하여, 봉사를 포함한 지역사회 내 참여를 장려하는 다양한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주자 사회관계망은 장소애착심을 시민행동으로 옮겨주는 중재적 역할을 하므로, 이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밀집지에서 이주자 간의 개인 네트워크 및 동포연합회 등의 단체 네트워크는 이주자들에게 취업 기회나 다른 사회적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만큼 한국사회 적응에 지대한 역할을 한다(김현선, 2010). 이러한 사회관계망의 확충을 위해 기존의 동포연합회나 프로그램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더 많은 이주자들이 지역 개선 프로그램에 쉽게 접하고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 또한 내국인과의 호혜적인 관계가 이주자 사회관계망과 연동이 되도록 하여, ‘그들만의 네트워크’에 그치지 않고 내국인과 상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 사례와 같이 내국인과 이주자가 함께 지역 내 환경 개선에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발굴하며 상호 교류 및 협력의 장을 늘려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주자들의 시민행동은 한국사회 적응이 뒷받침될 때 나타난다는 점을 주목하고, 이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해야 한다. 현재 공공에서는 단순한 복지 및 취업지원 외에도 외국인 지원 및 교류 센터의 설치, 한부모 다문화 가정에 맞춤형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정책 등 10년 전보다(박세훈, 2011)¹²⁾ 훨씬 높은 수준에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주자의 적응 정책들을 시

11) 대림역과 도림로 중심으로 대림2생활권 지구단위계획이 지정되어있고, 중앙시장을 포함한 남측 주거지역은 대림주거환경관리사업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부 지정되어 있으나 중국 문화와 관련된 세부적인 건물용도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포함되지 않았다.

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정된 국고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일부 내국인들의 달갑지 않은 시선들도 존재한다. 따라서 Berry(1997)의 문화적응론에서도 제언하듯이 이주사회의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에서도 이주자들에 대한 편견을 지양하고 그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여러 노력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개인이 단체를 이루어 봉사를 하는 집단적 시민행동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그래서 단체 활동이 아닌 개인 활동을 선호하는 이주자들의 장소애착심과 외국인 밀집지 내에서의 시민행동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사례 연구는 주거 중심의 지역 내 시장 주변으로 상업가도가 있는 특성을 가진 곳을 배경으로 중국동포라는 역사적·문화적 특수성을 지닌 이주자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간적·인구사회학적 측면에서 모든 외국인 밀집지와 이주자들을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는 다른 유형의 외국인 밀집지 및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가진 이주자의 시민행동에 대한 후속 연구에서 다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

원고접수일: 2021.01.20

1차 심사완료일: 2021.02.08

1차 수정완료일: 2021.03.01

2차 심사완료일: 2021.03.15

게재확정일: 2021.03.17

최종원고접수일: 2021.03.18

12) 박세훈(2011)은 2010년 당시 외국인 정책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을 방관자적 입장으로 단순한 상담이나 통역과 한국어 교육에 초점이 맞춰진 “매우 초보적인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Abstract

**Civic Engagement and Place Attachment of Immigrants in an Ethnic Cluster:
Daerim-dong as a Case Study**

Jiyon Shin, In Kwon Park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factors and effects of civic engagement in improving the community in an ethnic cluster, and its relationship with place attachment by applying a grounded theory method to the experiences of volunteers of the Daerim-dong Foreigners' Voluntary Crime Prevention Patrol (FVCP) in Seoul. The results show both the specificity of immigrants as well as the generality. First, in addition to general factors such as positive perception of the ethnic cluster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in the case of immigrants, special factors such as their adaptation to local society and awareness of the ethnic community act as causal conditions for place attachment and civic engagement. In addition, negative local public opinion on immigrants and the cluster motivates them to volunteer in the community, and their social ties connect them to engage. Immigrant civic engagement drives personal, social, and environmental development,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the civic activity itself, which in turn reinforces place attachment. From this, we can derive the conditions in which immigrants' local adaptation, place attachment, civic engagement, and community improvement can make synergistic effects with each other.

Keywords: Ethnic cluster, Civic engagement, Immigrant, Place attachment, Volunteer, Grounded theory, Daerim-dong

참고문헌

- 고민경. 2019. 「결혼이주여성의 가정 너머 불안정성 : (잠재적) 다문화강사의 가정 너머 불안정성의 생산 사례를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68, 63-95쪽.
- 김은재. 2018.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지역사회 자원 봉사활동 참여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지역사회학회》, 26(4), 65-90쪽.
- 김현선. 2010. 「한국 체류 조선족의 밀집거주지역과 정주의식: 서울시 구로·영등포구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87, 231-264쪽.
- 남성진·최정호·이재모. 2011. 「근거이론을 통한 지역사회복지사업의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9, 101-128쪽.
- 문경연. 2019. 「대만에서 ‘시민 되기’: 중국 출신 결혼이주자의 조직화」. 《다문화사회연구》, 12(3), 73-106쪽.
- 박세훈·이영아·김은란·정소양. 2009.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 연구(I): 외국인 밀집 지역의 현황과 정책과제」. 국토연구원.
- 박세훈. 2010. 「한국의 외국인 밀집지역: 역사적 형성과정과 사회공간적 변화」. 《도시행정학보》, 23, 69-100쪽.
- 박세훈. 2011. 「한국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의 비판적 성찰: ‘다문화 도시정책’의 제언」. 《공간과 사회》, 36, 5-34쪽.
- 박윤환. 2011. 「빈곤층과 외국인 주민 거주지분리에 대한 연구: 서울시 사례연구」. 《서울도시연구》, 12(4), 103-122쪽.
- 서지수. 2012. 「서울 대림동의 조선족 “통로(Portal)” 로서 장소성 형성」. 《지리학논총》, 49-75쪽.
- 양한순. 2015. 「다문화주의 시대 귀환 중국동포의 문화적 시민권」. 《동북아 문화연구》, 45, 231-254쪽.
- 이자은. 2019. 「근거이론 연구방법을 통한 주민들의 참여인식 및 행태변화 분석: 장위동 도시재생사업 참여주민을 대상으로」. 《국토계획》, 54(7), 24-41쪽.
- 이춘호. 2014. 「재한 중국 동포의 정체성의 정치」. 《아태연구》 21(3), 143-180쪽.
- 이화용·이영민. 2018. 「중국국적 이주자 밀집지역 내 경계와 질서의 재구성」. 《로컬리티 인문학》, 20, 7-41쪽.
- 홍우영·정석. 2018. 「근거이론을 활용한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내 주민의 찬반 입장변화과정 분석」. 《서울도시연구》, 19(1), 41-62쪽.

Adler, R. P., & Goggin, J. 2005. "What Do We Mean By "Civic Engagement?"" *Journal of Transformative Education*, 3(3), pp.236~253.

Anderson, J. C., & Moore, L. F. 1978. "The Motivation to Volunteer." *Journal of Voluntary*

- Action Research*, pp.120-129.
- Anton, C. E., & Lawrence, C. 2014. "Home is Where the Heart is: The Effect of Place of Residence on Place Attachment and Community Participation."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40, pp.451-461.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1), pp.5-34.
- Berry, J. W., & Hou, F. 2017. "Acculturation, Discrimination and Wellbeing Among Second Generation of Immigrants in Canada."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61, pp.29-39.
- Boğaç, C. 2009. "Place Attachment in a Foreign Settlement."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9(2), pp.267-278.
- Bonaiuto, M., Aiello, A., Perugini, M., Bonnes, M., & Ercolani, A. P. 1999. "Multidimensional Perception of Residential Environment."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9, pp.331-352.
- Brown, B. B., Perkins, D. D., & Brown, G. 2004. "Incivilities, Place Attachment and Crime: Block and Individual Effect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4(3), pp.359-371.
- Brown, B., & Perkins, D. D. 1992. "Disruptions in Place Attachment." *Place Attachment*
- Burchfield, K. B. 2009. "Attachment as a Source of Informal Social Control in Urban Neighborhood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7(1), pp.45-74.
- Chang, T. C. 2000. "Singapore's Little India: A Tourist Attraction as a Contested Landscape." *Urban Studies*, 37(2), pp.343-366.
- Clary, E., Snyder, M., & Stukas, A. A. 1996. "Volunteer Motivations: Findings from a National Survey."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25(4), pp.485-505.
- D. R. Williams, & J. J. Vaske. 2003. "The Measurement of Place Attachment: Validity and Generalizability of a Psychometric Approach." *Forest Science*, 49(6), pp.830-840.
- Da Silva, L., Sanson, A., Smart, D., & Toumbourou, J. 2004. "Civic Responsibility Among Australian Adolescents: Testing Two Competing Model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2(3), pp.229-255.
- Devine-Wright, P., Price, J., & Leviston, Z. 2015. "My Country or My Planet? Exploring the Influence of Multiple Place Attachments and Ideological Beliefs Upon Climate Change Attitudes and Opinions." *Global Environmental Change*, 30, pp.68-79.
- Dipasquale, D., & Glaeser, E. L. 1999. "Incentives and Social Capital: Are Homeowners Better Citizens?" *Journal of Urban Economics*, 45(2), pp.354-384.
- Estrella, M. L., & Kelley, M. A. 2017. "Exploring the Meanings of Place Attachment

- Among Civically Engaged Puerto Rican Youth.” *Journal of Community Practice*, 25(3-4), pp.408-431.
- Flanagan, C. A., Bowes, J. M., Jonsson, B., Csapo, B., & Sheblanova, E. 2020. “Ties That Bind: Correlates of Adolescents’ Civic Commitments in Seven Countries.” *Experiencing Social Research: A Reader*, 54(3), pp.303-322.
- Fried, M. 2000. “Continuities and Discontinuities of Place.”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0(3), pp.193-205.
- George C. Galster, & Hesser, G. W. 1982. “The Social Neighborhood: An Unspecified Factor in Homeowner Maintenance.” *Urban Affairs Quarterly*, 188(2), pp.235-254.
- Gidwani, V., & Baviskar, A. 2011. “Urban Commons.”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46(50), pp.42-43.
- Gold, S. J. 1992. “Refugee Communities: A Comparative Field Study. Newbury Park.” CA: Sage.
- Goudy, W. J. 1982. “Further Consideration of Indicators of Community Attachment.”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2), pp.181-192.
- Huang, X., Shi, Z., Li, Z., Liu, Y., & Xue, D. 2018. “The Effects of Social Ties on Rural-Urban Migrants’ Intention to Settle in Cities in China.” *Cities*, 83, pp.203-212.
- Irwin Altman, S. M. L. 1992. “Place Attachment.” New York and London: Plenum Press.
- Kals, E., & Maes, J. 2002. “Psychology of Sustainable Development.” (Peter Schmuck & W. P. Schultz, Eds.). Springer Science+Business Media, LLC.
- Kanakis, K., McShane, C. J., Kilcullen, M. L., & Swinbourne, A. L. 2019. “It’s the People that Keep Me Here: Exploring the Role of Community Attachment in Increasing Length of Residency.” *Journal of Rural Studies*, 70, pp.19-25.
- Kaplan, D. H., & Recoquillon, C. 2014. “Ethnic Place Identity Within a Parisian Neighborhood.” *Geographical Review*, 104(1), 33-51.
- Kyle, G., Graefe, A., & Manning, R. 2005. “Testing the Dimensionality of Place Attachment in Recreational Settings.” *Environment and Behavior*, 37(2), 153-177.
- Lalli, M. 1992. “Urban-related identity: Theory, Measurement, and Empirical Finding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2(4), pp.285-303.
- Lapierre, Y. Q., & Sinha, A. 1993. “Chinese Students’ Perceptions of Home and Community in the United States. A Case Study at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 Champaign.” *Habitat International*, 17(2), pp.123-134.
- Lewicka, M. 2005. “Ways to Make People Active: The Role of Place Attachment, Cultural

- Capital, and Neighborhood Tie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5(4), pp.381~395.
- Lewicka, M. 2010. “What Makes a Neighborhood Different from Home and City? Effects of Place Scale on Place Attachment.”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30(1), pp.35~51.
- Low, S. M., & Altman, I. 1992. “Place attachment: A Conceptual Inquiry,” in *Place Attachment*, I. Altman and S. W. Low(eds). New York, NY: Plenum, pp.1~12.
- Mazumdar, S., Mazumdar, S., Docuyan, F., & McLaughlin, C. M. 2000. “Creating a Sense of Place: The Vietnamese-Americans and Little Saigon.”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0(4), pp.319~333.
- Michels, A. 2011. “Innovations in Democratic Governance: How Does Citizen Participation Contribute to a Better Democracy?” *International Review of Administrative Sciences*, 77(2), pp.275~293.
- Palmer, N. A., Perkins, D. D., & Xu, Q. 2011. “Social Capital and Community Participation Among Migrant Workers in China.”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9(1), pp.89~105.
- Payton, M. A., Fulton, D. C., & Anderson, D. H. 2005. “Influence of Place Attachment and Trust on Civic Action: A Study at Sherburne National Wildlife Refuge.” *Society and Natural Resources*, 18(6), pp.511~528.
- Prezza, M., Amici, M., Roberti, T., & Tedeschi, G. 2001. “Sense of Community Referred to the Whole Town: Its Relations with Neighboring, Loneliness, Life Satisfaction, and Area of Residence.”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9(1), pp.29~52.
- Proshansky, H. M. 1978. “The City and Self-identity.” *Environment and Behavior*, 10(2), pp.147~169.
- Putnam, R. 1993.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4(13), pp.35~42.
- Rochelle, T. L., & Shardlow, S. M. 2012. “Involvement in Volunteer Work and Social Participation among UK Chinese.”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6(5), pp.728~736.
- Sampson, R., & Gifford, S. M. 2010. “Place-making, Settlement and Well-being: The Therapeutic Landscapes of Recently Arrived Youth with Refugee Backgrounds.” *Health and Place*, 16(1), pp.116~131.
- Sheng, M., Gu, C., & Wu, W. 2019. “To Move or to Stay in a Migrant Enclave in Beijing: The Role of Neighborhood Social Bonds.” *Journal of Urban Affairs*, 41(3), pp.338~353.

- Shye, S. 2010. "The Motivation to Volunteer: A Systemic Quality of Life Theory." *Social Indicators Research*, 98(2), pp.183~200.
- Song, Z., & Soopramanien, D. 2019. "Types of Place Attachment and Pro-environmental Behaviors of Urban Residents in Beijing." *Cities*, 84, pp.112~120.
- Stedman, R. C. 2003. Toward a Social Psychology of Place. *Environment and Behavior*, 34(5), pp.561~581.
- Stokols, N., & Shumaker, S. 1981. *People in Places: A Transactional View of Settings*. Harvey(Ed). NJ: Hillsdale Erlbaum.
- Strauss A., Corbin J.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Sage Publications. CA. pp.1~170.
- Toomey, A. H., Strehlau-Howay, L., Manzollilo, B., & Thomas, C. 2020. "The Place-making Potential of Citizen Science: Creating Social-ecological Connections in an Urbanized World."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Journal*, 200.
- Trueman, M., Cook, D. & Cornelius, N. 2008. "Creative Dimensions for Branding and Regeneration: Overcoming Negative Perceptions of a City." *Place Brand Public Diplomacy*, 4, pp.29~44.
- Vaske, J. J., & Kobrin, K. C. 2009. "Place Attachment and Environmentally Responsible Behavior." *The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32(4), pp.16~21.
- Vollstedt, M., & Rezat, S. 2019. *An Introduction to Grounded Theory with a Special Focus on Axial Coding and the Coding Paradigm*.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 Wu, R., Li, Z., Liu, Y., Huang, X., & Liu, Y. 2019. "Neighborhood Governance in Post-reform Urban China: Place Attachment Impact on Civic Engagement in Guangzhou." *Land Use Policy*, 81, pp.472~482.
- Zenker, S., & Rütter, N. 2014. "Is Satisfaction the Key? The Role of Citizen Satisfaction, Place Attachment and Place Brand Attitude on Positive Citizenship Behavior." *Cities*, 38, pp.11~17.

정부 보고서

- 법무부. 2018.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18년~2022년)」.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2019. 「제2차 외국인 정책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세부단위사업 추진계획(19~23년)」.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2019. 「제2차(2019~2023)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 정책 기본계획」.

신문 및 인터넷 자료

임기창. 2019. “외국인 밀집지역을 안전하게”...경찰, 범죄 예방 환경 조성 추진.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316045100004>(검색일: 2020.05.20).